日고야산 불교유산, 8K초고화질로 만난다

일본TBS, 세계유산 고야산 8K로 최초 촬영해 '화제'

창사25주년 맞아 세계유산 소개
사상 최초로 특별허가 받아 촬영
유산 공개 꺼리는 일본선 이례적

박영빈 객원기자



8K 카메라로 촬영 중인 단죠가란지구 서탑의 모습.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거리 여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온라인이나 가상현실 등을 통한 체험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 방송사가 차세대 초고화질 영상으로 주목받는 8K 해상도를 이용해 세계문화유산인 고야산의 입체만다라를 촬영·보도해 화제다.

10월 3일, '요미우리 신문'은 최초로 방송촬영이 허가된 고야산의 입체만다라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TBS는 창사 25주년을 맞이해 일본 내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불교 성지 고야산을 취재, 고야산의 사계와 각 사찰들을 약 7시간 분량의 8K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초고화질 영상으로 등장한 8K화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2K(풀HD)의 16배가 높은 해상도를 자랑한다.

특히 8K영상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생생한 현장감의 재현으로,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공간감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촬영을 담당한 타구치 아키라 감독은 "억지로 조명을 이용해 느껴지는 공간감이 아닌, 실제 현장에 와있는 듯한 자연스러운 음영과 공간의 무게감을 최대한 재현해 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약 1년간 간 진행된 이번 촬영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세계문화유산인 콘고산마이인(金剛三昧院)의 다보탑과 단죠가란(壇上伽藍)지구의 서탑(西塔)이다. 콘고산마이인은 13세기에 창건된 사찰로 경내의 다보탑은 1223년 건립돼 현존하는 고야산 최고(最古)의 목탑이자,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다보탑이다. 탑과 내부의 불상은 모두 국보와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본존으로 모셔진 오지여래(五智如來)상은 당시 최고의 불상 조각가인 운케이(運慶)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껏 다보탑은 학술촬영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방송영상 촬영이 허가된 적 없었으나, 오랜 협상을 거쳐 특별히 최초 촬영이 결정됐다.

타구치 감독은 "오랜 세월동안 불상에 앉은 먼지나 그을음 등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모션 컨트롤 카메라 등을 사용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그대로 살렸다"며 다보탑 내부의 아름다움을 한 장면 안에 그대로 담았다고 자부했다.

다보탑과 함께 특별허가가 나온 단죠가란의 서탑 역시 내부가 상시 비공개로, 여러차례 소실과 재건을 거듭해 약 200년 전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서탑은 특히 단죠가란의 중심 건물 중 하나인 근본대탑의 쌍을 이루는 탑으로 건립된 탑이다. 내부에는 금강계 대일여래상을 중심으로 태장계의 4불이 협시로 봉안 되어있다. 불상들과 함께 기둥의 보살도와 천정의 벽화들이 어우러져 탑 내부가 입체만다라를 이루고 있어 특히 미술적 가치가 높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 감독한 타츠미 케이타 프로듀서는 "8K카메라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3번째 작업이다"고 전했다.

英티베트 문화홍보 카페, 경영난 해소

인터넷 통해 전세계서 지원



카페에서 음식을 만드는 레카 가와. 사진출처=BBC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위치한 티베트 문화홍보 카페가 달라이라마와 전세계의 지원으로 경영난이 해소되어 화제다. 9월 30일 영국 최대 공영방송사 'BBC'는 티베트 문화홍보 카페 '히말라야 카페'의 소식을 전했다.

티베트 문화 홍보 카페 '히말라야 카페'는 인도 출신의 티베트 난민 레카 가와(Reka Gawa)씨가 운영하는 개인 카페다. 레카씨는 2004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영국을 방문한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후 에든버러에 티베트 문화를 홍보하는 '히말라야 카페'를 개업했다.

레카씨는 그 날을 회상하며 "달라이라마께선 스코틀랜드에 머물며 티베트의 문화를 홍보해 줄 것을 부탁하셨다. 그러나 임대중인 상가의 주인이 갑작스레 상가의 매매의사를 밝혔고 달라이라마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세계의 누리꾼들은 카페 상가 매입을 위해 모금을 진행했다. 레카씨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응원의 메시지와 기부에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고 전했다.

상가 매입금액 4만 5천 파운드(한화 약 7000만원)모금에 성공한 그녀는 "나는 인도 무수리(Mussoorie)에서 나고 자라면서, 영국에서 달라이라마를 뵙고 그 부탁을 받아 티베트의 문화를 홍보하는 카페를 운영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

상가 매입 모금 활동에 인도에 있는 모든 티베트 난민들과 나의 가족들이 축하해주었다. 나는 티베트 문화홍보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카페에 모든 정성을 다했다 히말라야 카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봉사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레카씨는 또 "내가 처음 에든버러에 왔을 때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힘든 기억이 있기에, 같은 난민이나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직업 훈련을 돕고 일 경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금 덕분에 티베트 문화 홍보를 지속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주민 손으로 되살아난 日석굴법당

市 보조금·보시금 답지
지역민들이 직접 정비해



주민들의 손으로 되살아난 텐푸쿠지 오쿠노인.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석굴법당이 지역 주민들의 신심어린 손으로 다시 정비됐다. 9월 27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중수한 '텐푸쿠지 오쿠노인(天福寺奥之院)'에 대해 보도했다.

오이타(大分)현 우사(宇佐)에 소재한 텐푸쿠지 오쿠노인은 해발 200m의 요코야마(横山)산 중턱에 자리한 석굴법당이다. 오쿠노인(奥之院)이란 일본 사찰에서 산내 암자 중, 사찰과 특별한 인연처에 세워지는 암자를 말한다. 텐푸쿠지 오쿠노인은 길이 21미터, 깊이 10미터, 높이 4.5미터의 천연 바위굴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법당이다. 부동명왕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어 지역에서는 부동당(不動堂)이라 불린다.

오쿠노인은 정면 3칸으로 중앙에 본존인 목조부동명왕상을 봉안하고 좌우에 총 76구의 불상이 봉안돼있다. 지역 사료에 따르면 부동당을 1113년에 건립하면서 80구의 불상을 봉안하였다고 전한다. 현존하는 불상들 중 43구는 현립 역사박물관을 이운되었고, 본존불을 포함한 33구의 목조 불상만이 본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이타 현립 역사박물관의 조사에 따르면 봉안됐던 불상들 가운데 8세기의 소조 삼존불의 파편이 발견되면서 실제로는 건립연대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오쿠노인이 소재한 요코야마산에는 비슷한 암굴법당, 혹은 석벽을 파서 만든 다수의 묘혈(墓穴)이 다수 점재해 있어 오래전부터 해당 지역이 성소로 여겨져 왔음이 확인됐다.

또 올해 초 요코야마산에 산재한 유적들을 돌아보는 트랙킹 코스가 정비되면서 오쿠노인의 역사성과 풍경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평소 오쿠노인을 참배하던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환경정비에 나섰다.

오쿠노인의 관리처인 텐푸쿠지(天福寺) 측에 따르면 "30여년 전에도 신심 깊은 지역 주민들이 나서 지금의 참배로와 법당 앞의 마루 등을 정비했다. 그러나 산길이 험해 그 동안 한 번도 보수나 수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암굴의 특성상 습기로 인해 나무가 쉽게 부식되면서 마루가 내려앉았고, 무엇보다도 벌어진 문틈으로 새들이 드나들며 집을 짓거나 배설물 등으로 불상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올 7월부터 시작된 보수작업은 시의 지원금과 신도들의 보시금으로 진행됐다. 신도들과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은 등산로부터 오쿠노인까지 이어지는 170여 개의 돌계단을 하나하나 손으로 옮겨가며 보수를 시작했다. 이후 내려앉은 마루를 교체하고 새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철망을 문에 설치하는 등의 작업도 진행했다.

특히 그동안 열악한 상황에 안치됐던 불상들을 안정적으로 봉안하기 위해 새롭게 안치대를 마련했다.

지난 26일 텐푸쿠지 주지 아소 짓코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점안식과 낙성법회에서 주민들과 지역단체장들은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안전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오쿠노인의 보전에 힘쓰겠다고 결의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자비심 위해 배심원 그만둘래요"

美 배심원, 불교신앙으로 제외



법정으로 출두하는 엘리자베스 홈즈. 사진출처=데일리뉴스

테라노스 설립자인 엘리자베스 홈즈의 사기재판에서 한 배심원이 불교신앙에 기반한 자비심에 의해 배심원단에서 제외됐다.

미국 데일리뉴스는 10월 8일 "한때 실리콘 밸리의 슈퍼스타였던 엘리자베스 홈즈의 처벌에 대해 한 배심원이 불교신앙에 따른 종교적 이유로 재판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배심원 번호 4번인 그녀는 캘리포니아 법정서 담당 판사인 에드워드 데빌라(Edward Davila)에게 "연민심을 갖고 있다. 불교를 믿기에 사랑과 용서를 위해 배심을 맡을 수 없다"며 본인을 배심원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심 제외 요청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매일 심판으로 인하여 당사자와 여러 사람이 고통스러워 할 것이 떠오른다"며 "이런 배심은 처음이고 한 사람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배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판사에게 "나는 홈즈가 감옥에 있을 시간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저에게는 배심이 매우 어렵다. 그녀가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야 하고 나는 여기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있다.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담당판사 데빌라는 배심원을 직무에서 제외했고, 대체 배심원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홈즈는 피 한방울로 각종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기술을 제시하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녀는 테라노스를 설립해 투자를 모았으며, 기술이 거짓임이 드러나며 투자사기 혐의로 최대 20년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공심의 불기둥으로
나와 세상을 밝히는 법형제

한가정의 가장이 앞장서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진해야
그 가정 전체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

1990년 3월 법형제회 발족에 즈음하여 대행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법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법형제회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TEL. 010-9630-2095